

핑크스타일의 토탈 코디네이션 경향

권해기 · 이연희 *

(주) 한섬 F. I. 기획실 ·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

A Study on Total Coordination Trend Appeared in the Punk Style

Hai-ki Kwon · Yon-hee Lee *

Dept. of Planning, Han-Seam F. I. Co · Dept. of Beauty & Fashio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
(2003. 9. 5 접수)

ABSTRACT

It is an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oneself and is affected by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oo. People are creating another new lower culture, it's Sub Culture, that is, their own unique new fashion through the coordination status of a lower culture and its components to reveal the visual symbol of such garments and body decorations most clearly.

The Punk formed as an reaction to 1960's hippie appeared as the most unpleasant image to the established generations with their ultimate resisting action and new aesthetic-consciousness. Their coordination by the use of the disorder and stimulative tool which gives abhorrence appears again as Cyber Punk being influenced by optical art and multimedia in '90s. It can be seen that the form of lower culture mentioned above became a storehouse of new fashion creation through the most nuclear role of lower culture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 coordination by age and that each lower culture fashion can become a style icon of new fashion through free coordination.

Key Word: Sub Culture(하위문화), Punk(핑크), Total Coordination(토탈 코디네이션), Fashion Trend(패션 트렌드)

* Corresponding author : Yon-hee Lee

E-mail : yh8170@hanmail.net

I. 서론

20세기 패션사에서 하위문화의 영향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류문화에 대한 반문화로 간주되기도 하는 하위문화는 '60년대의 모즈와 히피, 그리고 '70년대 핑크라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히피의 낭만주의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탄생한 핑크족들의 성향은 패션에도 뚜렷하게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핑크스타일은 20세기 하위문화패션 중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다.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강한 이미지는 21세기 패션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 문화의 조합' '이질적 요소간의 조합' '전 시대 각 문화들의 혼합'을 지향하는 현대패션 트렌드와 '패션을 통한 개성화'를 원하는 소비자의 마인드가 잘 부합된 결과라고 본다.

몇몇 하위문화 패션 중 특히 핑크의 반항적 이미지는 독특한 스타일로 그들만의 매력을 추구하고자하는 집단들에게 흥미 있는 패션 아이콘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재창출되고 있다. 즉, 핑크의 고유한 특징을 이질적인 의복 아이템에 조합시키거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과 같은 외모장식의 각 요소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의복류와 크로스 코디네이션 시키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패션흐름은 그동안 의복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핑크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토탈 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일반적인 생활용어로 정착된 코디네이션이란 용어는 의복아이템간의 조화나 융합에서 한 단계 더 나

아가 의복류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간의 총체적 조화 즉, 토탈 코디네이션을 통한 이미지 연출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코디네이션란 용어는 1970년대 미국에서 대두되었지만, 국내에 정착된 것은 기성복산업의 성숙기였던 1980년대 후반이었으며, 그것이 일반화 된 것은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디네이션'은 패션생활영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영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 트렌드의 새로운 근간이 되고 있는 핑크스타일을 패션생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개성적 외모연출을 위한 패션아이콘간의 다양한 조합가능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하위문화로서의 핑크패션의 특성과, 토탈 코디네이션적 관점에서의 핑크스타일의 특성을 국내외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 그리고 잡지 등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 연출 수단으로서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토탈 코디네이션이 학문적 연구 대상의 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두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져 가고 있는 실생활에서의 패션 흐름을 학문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이를 미용을 포함한 패션산업의 전 영역에서 향후 트렌드 제시를 위한 확대재생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하위문화로서의 핑크 패션

1) 하위 문화

하위문화란 영어의 '서브컬처(subculture)'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 저소득층의 마약문화 등과 같이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특별한 집단이나 개인의 신념, 태도, 그리고 행동들, 히피 등의 신문화, 이(異)문화·집하위문화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청소년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사용되어왔고, 지배적 문화 혹은 사회의 중심계층 문화로부터 이탈된 현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시 말해 하위문화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 안에 위치하면서, 사회역사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사회집단이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Hartley et al, 1984)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곧 다양한 수용자 집단이 각자의 조건에 따라 보여주는 문화적 실천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문화인 것이다.¹⁾

하위문화는 개념적으로 '역사적 하위문화'와 '하위문화 일반'으로 구별되고 이 때 패션과 관련한 하위문화는 역사적 하위문화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영국의 청년문화 형태인 모드부터 핑크까지를 지칭하기도 한다.²⁾ 강혜원은 유행이론의 상향 전파설을 통하여 패션에서의 하위문화를 낮은 사회계층인 흑인, 젊은이, 노동자 등의 하위문화집단에 의해서 채택된 유행이 높은 사회계층으로 번져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³⁾, 정현숙과 양숙희는 하위문화의 매력은 반항적이고 쾌락주의적이며 사회와 가정의 통제로부터 탈출하는데 있으며, 이 때 스타일은 하위 문화

적 정체성의 중심을 형성하므로 의상과 신체장식이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광범위하게 세상을 배제하는 것을 알리는 시각적인 표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하위문화패션에 관한 국내외 문헌자료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패션에서는 하위문화를 사회의 비주류집단들 중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스트리트(Street) 스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의복·화장·헤어스타일 등의 신체장식을 독특하게 연출함으로써 집단의 동질성을 표현하고 주류패션으로부터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⁵⁾⁶⁾⁷⁾

오늘날 패션에서 이러한 스타일들이 주는 의미는 그것이 단순히 소수집단의 패션행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체패션 흐름은 물론, 현대 패션 트렌드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90년대 이전 즉, 퍼스널 컴퓨터가 생활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하위문화 패션이 락(rock) 음악과 관련한 대중문화 흐름에 의한 것이었다면,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하위문화는 패션의 전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패션의 특징은 다원화 사회에 따른 정체체감의 변화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핑크 문화

핑크란 겁쟁이, 풋내기 등의 영어의 보편적 속어로서의 의미와, 감옥에서 여자역할을 하는 동성애자, 또는 남자 동성애자를 위한 소년과 같은 성과 관련한 저급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와 사랑을 주장하던 '60년대 히피의 낭만주의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는 속성상 더욱 공격적이며, 파괴적

인 경향을 특징으로 한다.⁸⁾ ‘무정부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영국에서 발화된 핑크는 ‘70년대 경제 불황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직면함으로써 이전의 하위문화 세력들 보다 더욱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즉 그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흐름과 체제에 대한 부정, 경제 불안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만, 군주제, 종교, 가족제도, 계급주의 등 기존체제나 질서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조소를 보내고 맞서고자 했던 공격적인 집단이었다.’⁹⁾ 핑크는 일자리를 잃은 젊은 실업자나 노동계층들에 의한 하위문화였지만, 핑크문화는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을 비롯한 예술학교 출신의 브레인들에 의해 계산된 ‘전략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젊은 실업자들의 반항과 노동자들의 계급적 저항을 접속시켰는데, 여기에는 매스미디어를 교묘하게 이용한 말콤 맥라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중음악의 매니저로 일하던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 로큰롤을 탈신비화하고 그를 통해 기성체제 전체를 탈신비화 할 수 있다는 계획적인 의도로 그룹 섹스 피스톨즈(The Sex Pistols)를 결성시켰다. 맥라렌에게 있어서 섹스 피스톨즈는 핑크 운동의 확산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 도구로 활용된 것이 대중매체였다. 뿐 만 아니라 그는 핑크에 관한 대중보도에서 이전의 글램록(Glam Rock)¹⁾의 상황적 기교를 표절하고

생활의 권태와 소비주의에 의한 좌절을 나타내는 공격적인 슬로건을 내걸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의도는 마침내 성공하여 영국에서 핑크는 발화되었다.¹⁰⁾¹¹⁾¹²⁾

핑크와 이전의 하위문화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자신이 소속된 청년 문화마저 공격하고, 미래는 물론 과거도 부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핑크문화의 틀 안에서 그들이 지향한 패션스타일 또한 공격적이고 과격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킨 의복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그리고 피어싱과 같은 신체장식 등이 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III. 토탈 코디네이션 관점에서의 핑크스타일의 특성

1) 토탈 코디네이션의 개념

코디네이션은 두 종류 이상의 아이템을 ‘조화’, ‘조정’, ‘통합’, ‘대응하게 함’ 등의 의미로, 1960년-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 사용되어졌지만¹³⁾¹⁴⁾, 국내에서 정착된 것은 기성복 산업의 성숙기였던 1980년대 후반이었으며, 그것이 일반화된 것은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생활용어로 정착된 코디네이션이란 용어는 의복 아이템간의 조화나 융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의복류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간의 총체적 조화 즉, 토탈 코디네이션을 통한 이미지 연출에 궁극적인

1) 글램록이란 1970년대의 음악 스타일로서 글래머러스(glamorous), 글리치(glitzy)하다고 평가되는 스타일들이다. 이런 스타일들은 음악적인 사운드, 의상스타일, 화장 및 헤어스타일, 무대장식 모두에서 인공적이고 가식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휘황찬란한 의상 및 메이크업으로 인해

이들의 음악은 글리터 록이라고 하였다.(신현준(1998). 록 음악의 아홉가지 갈래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p.164) 글램 록의 대표적 가수는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를 들 수 있다.

목적을 두고 있다.¹⁵⁾

패션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코디네이션은 의복 아이템간의 조화 차원에서 의복과 장신구간의 상호 조합, 그리고 의복류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이른바 토탈 코디네이션으로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21세기 생활 문화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디네이션의 역할은 외모 지상주의적인 현대사회의 특징과 잘 부합되어, 특히 개성적 라이프스타일과 차별화 된 패션을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들에게 자기연출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한편, 토탈 코디네이션은 외모장식요소들 간의 적절한 조합과 배치로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그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시킴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의식까지도 추론 가능하게 하는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¹⁶⁾ 토탈 코디네이션 이미지 분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외의 몇몇 문헌자료들에 근거할 때, 일반적으로 엘레강스(elegance), 로맨틱(romantic), 내추럴(natural), 에스닉(ethnic), 드라마틱(dramatic), 클래식(classic), 모던(modern), 아방가르드(avant-garde) 등 다양한 이미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¹⁷⁾¹⁸⁾¹⁹⁾ 이러한 구분은 패션테마 또는 패션 타입, 컬러, 소재, 그리고 의복 아이템에 의하여 분류되었던 패션 코디네이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효과가 사람의 전체 외모를 형성하고, 그것에 의하여 그 사람의 외적 이미지가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핑크족의 외모장식 수단이었던 의복과 메이크

업, 헤어스타일, 그리고 장신구를 토탈 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그들의 패션 행동 특성은 물론, 그들의 메시지를 외부세계에 전달하는데 어떠한 외모장식 수단이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더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핑크패션의 토탈코디네이션적 이미지

토탈 코디네이션적 측면에서의 핑크 스타일은 여러 가지 이미지 중 드라마틱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의복 자체에 대한 디자인적 특성은 전위적이란 의미의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람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토탈 코디네이션적 관점에서는 드라마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에는 연구자의 패션산업분야 실무경험과 이미 언급한 Jackson C(1984), Spillane M., sherlock C.(1995), Pooser D. (1997)의 문헌들이 그 근거자료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드라마틱(dramatic)은 무대 주인공과 같은 시선 집중형 이미지 연출에 포인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즉, 무대 주인공처럼 돋보이는 외모장식 수단을 이용하여 강한 이미지를 전달시키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연출경향을 의미한다. 의복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장신구 등의 각 요소들이 외모에 더하여졌을 때 완성되는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이들 요소 하나하나의 이미지와 그 요소들의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미지는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핑크스타일 각 요소에 대한 이미지 파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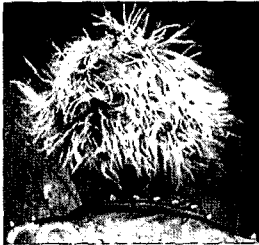
핑크족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복과 장신구, 기타 신체장식용 악세서리,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형성된 전체적 이미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헤어스타일

핑크 헤어스타일은 형과 색을 특징으로 한다. 형의 특징은 크게 <사진 1>과 같은 닭벼슬형, <사진 2>와 같이 무스나 젤을 사용하여 지지분하게 뽀치게 만든 형, <사진 3>처럼 스파이크(spike)형으로 상승시킨 것, 그리고 스킨헤드(사진 10 참조) 등이 있다.



<사진 1> 닭벼슬 모양의 핑커
1980년 (Style Surfing. p.55)



<사진 2> 지지분하게 뽀친 형
1980년 (Style Surfing. p.55)



<사진 3> 스파이크형, 1984년
(Fashion Today. p.373)

특히 오늘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사진 1>과 비슷한 모습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게 되면서 이 헤어스타일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사진 2>와 같은 형클어진 머리모양은 더욱 성분이 강화된 무스나 스프레이 젤 이외에 '왁스'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개성적인 남·여성들의 일반적 헤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색에 대한 특징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의 원색적인 염색이나 <사진 3>에서 알 수 있는 검정색, <사진 4>와 같은 붉은 색 머리의 핑커들, <사진 5>에서처럼 빨강·검정·노랑을 강하게 대비시킴으로서 핑커의 특징을 더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회색으로 염색시키거나 머리색을 열게 탈색(사진 15 참조)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화려하게 변화시켰던 핑커들의 헤어컬러들은 오늘날 헤어 컬러링의 일반화 추세와 함께 남녀노소의 스타일 연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



<사진 4> 빨강색으로 염색한 다양한 닭벼슬머리
1987년 (Street Style, p.91)



<사진 5> 삼색으로 염색한 펑커
1980년 (Decorated Skin, 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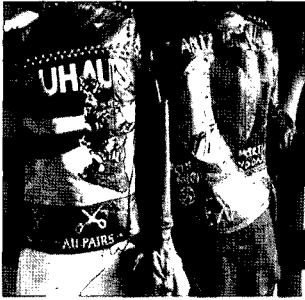
(2) 메이크업

펑크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검정색을 사용하여 눈을 강조시킴으로서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더하였다는 것이다.(사진 3 참조). 또한 <사진 5>에서와 같이 검정색을 눈썹선과 연결시키고 눈과 눈썹사이의 아이 새도를 원색적 컬러로 그라데이션(gradation) 시키거나, 블러셔(blusher)를 수직으로 길게 강조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사진 13>, <사진 15>, <사진 22>에서도 보여 지고 있는 수직적인 블러셔는, 펑크족의 외모장식을 '노동계급성'의 은유적인 표현이나, 프로레타리아 계층임을 암시한다는 Richard Hell의 지적과²⁰⁾ 메이크업으로 초체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화장의 기존 개념을 거부하고자 하였다는 Dick Hebdige의 언급²¹⁾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3) 의복과 장신구

계절과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복은 두부(頭部)를 제외한 신체의 많은 부분을 감싸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모장식의 대표적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펑크족에게 있어서 의복은 그들의 반항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의복을 단순히 '입는다'거나 '아름답게 꾸미는' 용도로서

가 아니라, 의복 위에 조잡하고 혐오스러운 여러 가지 장식을 더하거나 변형시켜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펑커들의 의복은 색에 있어서는 검정, 소재에 있어서는 가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위한 신체의 노출이나 그물망 스타킹, 특히 하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의도적인 찢음, 그리고 착장 방식에 있어서 지저분하게 겹쳐 입는 방식 등도 나타난다. 문양에서는 동·식물과 같은 자연문양에서 기하학, 추상 무늬를 기형적으로 변화시켜 사용하거나, 심지어 해골이나 뼈 등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의복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이미지는 색상이나 소재 뿐 아니라 금속장식을 박고 부착시킴으로서 그 효과를 더하였다. 이와 함께 의복에 의미 파악이 어려운 이상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넣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사진 6>은 그림과 글씨의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장식을 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나타내는 가죽상의를 겹쳐 입기 한 것이다. <사진 7>에서는 주로 가죽 재킷이나 베스트에 금속장식을 복잡하게 붙이고, 바지를 의도적으로 찢어 그 속에 신은 레깅스가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군화를 착용한 펑커에서 극단적으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펑커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사진 6> 글씨장식의 가죽상의와 겹쳐입기. 1980년대 (Street Style, p. 90)



<사진 7> 의도적 지지분함 속의 핑커
1980년대 (Street Style, p. 8)

의복 이외의 장신구는 모자와 신발, 그리고 핸드백 등으로 한정하는데, 펑크족 사진 자료에서 나타나는 장신구의 큰 특징은 모자와 신발은 많지만 핸드백을 든 모습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본 연구 자료로 사용한 사진 자료에서 나타나는 핸드백은 <사진 6>에서와 같이 천으로 만든 것이나 가죽이나 비닐 소재의 어깨에 걸치는 큰 가방 등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DIY(Do it yourself)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핑커임을 암시하고 핑커로서의 정체감을 표시할 수 있는 외모장식용 소품들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이 필요하였을 것 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DIY에 관한 언급은 제 III장에서 하기로 한다.

(4) 기타 신체장식용 악세서리

핑커들의 액세서리는 금속류에 의한 피어싱이 가장 많다. 피어싱은 입, 귀, 코, 그리고 뺨에 이르기까지 얼굴을 중심으로 한 전 영역에서 나타난다. <사진 8>은 뺨과 귀에 구멍을 뚫어 쇠사슬로 연결하여, 의도적인 피부훼손에 의한 기형적인 악세서리 장식을 보이고 있다. <사진 9>는 크고 작은 링 귀고리, 금색 쇠사슬 목걸이, 재킷 좌우를 연결하여 벨트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는 금색과 은색의 쇠사슬, 역시 두꺼운 금속소재의 팔찌 등을 복잡하게 걸치고 있는데, 이 핑커의 액세서리 착용방식은 비슷한 소재나 이미지의 장신구를 각 부위마다 연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사진 10>은 이마에 보석을 박고, 귀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서로 다른 크기의 금속 링을 걸고 있을 뿐 아니라, 코 양 옆의 보석 피어싱과 코 끝 중앙에 큰 링까지 달고 있다. 이러한 피어싱 장식은 스킨헤드 시킨 머리 위에 그려진 문신과 함께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사진 8> 뺨과 귀를 연결한 쇠사슬장식,
1970년대 (20th Century Fashion, p.22)



<사진 9> 복잡한 악세서리를 착용한 펑커,
1907년대 (20th Century Fashion, p.23)



<사진 10> 다양한 피어싱, 년도미상
(Decorated Skin, p.234)

피어싱은 얼굴의 전 부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0>과 <사진 11>은 특히 코와 귀의 피어싱이 돋보이는 모습들이다. <사진 11>의 남성 펑커는 왼쪽 귀 위에서 아래까지 10여 개에 달하는 구멍을 뚫어 금속 링을 걸고 있으며, 여러 개의 금속 링 중에는 십자가와 나찌 모양 장식이 달려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 파시즘의 상징물을 동시에 활용한 사례들은 체제와의 극한 대립을 지향하고자 하였던 펑크 문화의 속성을 파악하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한편, 문신은 <사진 10>에서 볼 수 있는 일시적 문신으로 여겨지는 의미가 불분명한 기하학적 무늬나, <사진 12>와 같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팔에 그려 넣음으로써 펑커 답지 않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끼게 하거나, <사진 13>에서처럼 문신으로 얼굴장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여성 펑커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사진 13>은 이마에서 두피, 얼굴 가장자리에서 뺨까지 기하학적 무늬를 연속적으로 그렸으며, 이마에 인도식 빈디와 같은 장식을 박고 그 가장자리를 주황색 수평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마치 빛이 발산 듯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귀고리, 목걸이, 팔찌, 얼굴 피어싱 이외에도 펑크스타일에서는 의복 자체에 잭 나이프, 면도칼, 그리고 끈자 모양이나 인공기가 그려진 브로치 등을 달기도 하였다.



<사진 11> 귀의 피어싱, 1983
(Fashion and Style, p.75)



<사진 12> 팔 문신, 1980년대
(Street Style, p.93)



<사진 13> 두피와 얼굴장식, 1970년대
(A Fashionable History of Make up & Body
Decoration. p.13)

(5) 전체적 이미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복류와 장신구, 그리고 기타 신체 장식용 액세서리의 각 요소들이 형성하는 펑크의 전체 이미지에 대하여, Dick Hebdige는 아방가르드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것은 ‘몰교양성’, ‘불경스러움’의 극단이라고 지적하였다.²²⁾ 20세기 패션의 역사에서 하위문화로 지칭되는 많은 것들 중, 특히 모즈, 히피, 펑크는 대표적인 하위문화 패션으로 간주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펑크스타일의 특성은 위에서 언급한 디 헤브디지의 몰 교양성과 불경스러움이라는 용어로서 잘 함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각에서 몰 교양적이고 불경스러운 것으로 비쳐졌던 스타일은 오늘날 패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해석의 관점 변화와 함께 드라마틱 이미지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드라마틱 이미지를 표현하는 펑크스타일은 기형적인 요소들 간의 복잡한 융합, 강한 색상대비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의복 색상에 있어서 검정을 기본으로 갖가지 원색과 화이트 등의 강한 대비를 시도하며, 그물망 소재, 찢어진 바지 속에 드러나는 스타킹(사진 7 참조) 자신이 손수 만든(DIY) 소품, 그리고 기

이한 형태와 색상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과 복잡한 장신구들을 무절제하게 몸에 걸치거나 바르고 변형시킴으로서 그들만의 개성을 연출하고 있는 다양한 예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펑크스타일의 각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전체 이미지는 <사진 14>와 <사진 15>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 14>는 드라마틱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펑크족의 다양한 모습이다. 의복,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이들 각 부분 요소들 간의 토탈 코디네이션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이나 무정부주의적인 그들의 의식을 외모장식이라는 수단을 빌어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이한 헤어스타일은 그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닭 벼슬 모양의 형태나, 두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헤어컬러, 머리카락의 부분염색 등이 돋보인다. 네 번째 모델의 경우 머리-목-폴오버-재킷 장식이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머리카락의 부분적 염·탈색의 반복으로 전체 머리 문양으로 패턴화 시키고, 머리와 목과의 일련의 조화를 위하여 목 부위에 기하학 문양의 문신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폴오버의 표범 문양과 머리패턴과의 조화, 그리고 기하학 모양의 금속 장식을 한 가죽 재킷은 토탈 코디네이션의 효과를 더함은 물론, 그들의 반항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첫 번째 모델의 가죽 베스트에서 나타나는 징과 쇠사슬 장식은 미적 효과를 높인다는 장신구에 대한 기존 개념을 역행하는 반 패션적 요소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파랑색 그라데이션과 앞으로 내린 주황색 머리간의 조화, 그리고 의복 각 아이템

간의 레이어드 착장 방식이 극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전체적으로 4명의 모델이 취하고 있는 외모 장식 각 요소들 간의 토탈 코디네이션 방식과 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모델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표현하는 전체 이미지는 펑크족들의 사상과 의식을 전달하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진 15>는 펑크족의 상징인 검정 가죽 재킷을 호피 무늬, 금속 징, 그리고 캐릭터 핀으로 장식하고, 그 안에 유아적 이미지의 캐릭터가 프린팅 된 원피스를 착용함으로써 여타 펑커가 주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순화시키고 있다. 특히 부채꼴 모양으로 상승시킨 탈색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눈 아래를 강조시킨 아이라인과 볼 화장에서 드라마틱한 이미지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컬러에 있어서도 탈색시킨 헤어컬러와 군화(軍靴) 끈을 통일시킴으로써 컬러 코디네이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여성 펑커가 주는 전체 이미지는 <사진 14>과 같은 지저분함이나 기이함이 아니라 귀엽고 코믹한 측면에서의 드라마틱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4> 혐오스럽게 극적인 이미지의 펑크족들, 1980년
(Costume & Fashion, p.270)



<사진 15> 귀여운 이미지의 여성 펑커
(Fashion Today, p.372)

3) 펑크 스타일의 토탈코디네이션 특성

펑크스타일의 토탈코디네이션적 특성은 첫째, 반사회적 상징물 사용에 의한 특징, 둘째 노골적 성적 표현, 셋째 여성적 취향과 남성적 취향의 혼합, 넷째 DIY(Do it yourself) 방식에 의한 개성적 스타일 연출, 다섯째 21세기 토탈 코디네이션에 재해석되어진 펑크스타일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반사회적 상징물 사용

펑크족이 사용하였던 반사회적 상징물은 나치즘(Nazism), 혼돈과 무정부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와 이미지의 사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된 외모장식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6>은 나치 상징물을 재킷에 달고 있는 섹스 피스톨즈의 일원이었던 조니 로튼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나치 장식물은 <사진 11>의 귀고리에서도 볼 수 있다. <사진 17>에서는 티셔츠의 앞에 그려진 해골 그림과 가죽재킷 뒤의 '투쟁'이라는 글씨, 그리고 반사회적 의미가 내포된 그림 등이 표현되어

졌다. 이와 함께 <사진 18>은 가슴에 인공기를 상징하는 별모양이 담겨진 둥근 브로치를 달고 있는 여성 핑커들의 모습으로서 이들 역시 영국이나 미구그이 이념과는 상반된 상징물을 착용하여 반 사회적·국가적 의식을 외모장식으로 암시하고 있다.



<사진 16> 나치장식을 단 조니로튼, 1970년
(Men's Fashion, p.119)



<사진 17> 공격적 언어장식, 1980년
(Style Surfing, p.55)



<사진 18> 인공기 상징의 브로치, 1979년
(Fashion, Desire & Anxiety, p.46)

(2) 노골적 성적 표현

핑크 록을 통하여 나타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1960년대 성에 대한 자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가졌던

보수적인 태도에 대한 공격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의복을 통하여 성적인 인간의 감춰진 욕망, 그리고 외설적 이미지와 슬로건들에 대한 단호한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 디자이너로 손꼽히고 있다. <사진 19>는 자신의 샵 'Sex' 앞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그의 어시스턴트, 락 가수 등 핑크 선두주자들과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나타내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1970년대 핑커들의 모습이며, <사진 20>에서는 가죽 핫 팬츠를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도발적이고 이상한 자세로 섞여있는 남녀들을 통하여 이들이 추구한 성적 자유로움을 읽을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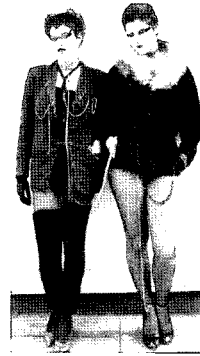
<사진 19> Shop 'Sex'에서 비비안웨스트우드와 핑커들, 1976년 (Made in Britain, p.153)



<사진 20> 도발적 포즈의 혼성 핑커들, 1974년
(Icons of Fashion, p.120)

(3) 여성적 취향과 남성적 취향의 혼합

하위문화 패션의 대표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모즈, 히피, 핑크의 스타일적 특성은 옷에 의한 성의 구분은 지양하였다는데 있으며, 이 때 모즈나 히피가 남성패션을 여성화 시키는 경향이 강하였다면, 핑크는 여성패션을 남성적 이미지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핑크스타일은 특히 성해방을 부르짖고 강인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경멸적인 변덕을 표방하는 젊은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남녀구별이 모호한 이들의 외적 특성은 <사진 21>과 <사진 22>를 통하여 나타난다. <사진 21>에서 보이고 있는 기이한 눈 화장과 남성적 헤어스타일은 남성 지향적 외모를 강조하는 핑크스타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왼쪽 여성 핑커의 개목걸이 장식과 두 모델을 이어주는 개 줄은 이들이 단순한 동류집단의 표시를 넘어, 핑크라는 말 속에 담긴 동성애자의 의미까지도 표현하는 것이라는 추론까지 가능하게 한다. <사진 22>는 성적 구분을 잘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차림세의 핑커이다. 특히 옷차림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얼굴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선글라스로 가린 눈과 표정,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주는 영향 때문일 것이다.



<사진 21> 동성애자들임을 암시하는 핑커들, 1980년대초 (Fashion and Style, p.7)



<사진 22> 성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핑커, 1983년 (Fashion Today, p.372)

(4) DIY 방식에 의한 개성적 스타일 연출

핑크스타일의 또 다른 특성은 'DIY'라는 슬로건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극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화장실 체인, 안전핀, PVC 합성섬유, 인조 표범무늬 가죽, 옛날학교 교복, 플라스틱 쓰레기 가방 등으로 자신의 외모를 직접 장식함으로써 DIY라는 이슈에 부합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의 외적 이미지가 더욱 극적이고 개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직접 연출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 23>은 카우보이 모습으로 조잡하게 연출한 남자 핑커와

무릎부위를 찢은 바지를 허리선에서 불규칙하게 접어 입고 있는 여성 핑커이며, <사진 24>는 셔츠 없이 넥타이를 목에 직접 매고, 옷핀을 살에 직접 찔렀으며, 금속 링에 쇠줄을 늘어뜨린 귀고리, 재킷의 어지러운 장식, 그리고 양 팔의 문신 등으로 극적인 조악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 남성 핑커이다. 이외에도 DIY의 특성을 보이는 예들은 <사진 5>와 <사진 7>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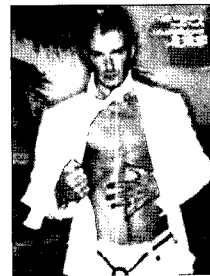
<사진 23> DIY에 의한 연출이 돋보이는 핑커들, 1984년 (Men's Fashion. p.119)



<사진 24> 복잡한 상의장식과 장신구의 핑커, 1980년대 초 (Fashion and Style, p.6)

(5) 21세기 토탈 코디네이션에 재해석 핑크스타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형적이고 극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핑크스타일의 각 요소들은 '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90년대의 해체주의 경향과의 지속적인 융합을 꾀하다가 토탈 코디네이션이 강조되는 현대 패션의 다문화주의, 혼성주의 경향 등의 영향 아래 다양한 양상으로 접목되어져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출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핑크스타일은 <사진 25>, <사진 26>, <사진 27>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진 25>는 축구스타 데이비드 벡엄(David Beckham)의 모습인데, 전형적인 더블 브레asted (double breasted) 흰색 슈트를 불량스러운 착장방식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핑크이미지의 헤어스타일을 더하여 전체적으로 핑크와의 크로스오버를 이루고 있다. <사진 26>은 섹시 로맨틱 이미지의 상의와 찢고 불균형적인 청바지, 그리고 변형시킨 그물 스타킹 등이 혼용되어 드라마틱하면서도 선정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진 27>은 핑크스타일을 재해석시킨 수직적 볼 화장, 두꺼운 개목걸이, 광택 있는 가죽 재킷과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수직 사링으로 가슴부위를 강조시킨 로맨틱 원피스 드레스가 융합된 토탈 코디네이션 이미지이다.



<사진 25> 핑크이미지의 데이비드벡엄
(<http://image.search.daum.net>, 검색:2003. 10. 1)



<사진 26> 의복에서 재해석된 핑크
03,04 F/W, Roberto Cavalli
(Fashion Flush, 37면)



<사진 27> 핑크목걸이와 불화장의 재현
2003, S/S 장 폴 콜티에 (Fashion Flush, 37면)

IV. 결 론

20세기의 하위문화 패션 중, 가장 강한 상징성을 부각시켰던 핑크스타일은 21세기에 이른 지금, 가시적 상징성을 추구하는 개성적 집단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패션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에서 혼용되어지고 있는 핑크스타일은 첫째, 핑크적 요소가 강한 화려한 색상과 형태의 헤어스타일 부상, 둘째 메이크업에서 강한 색과 터치(touch)의 포인트 메이크업, 셋째 도발적 이미지의 의복 디자인과 지저분한 착장법의 부각, 넷째 개목걸이, 긴 사슬 목걸이, 큰 링 귀고리, 다섯째 코·뺨·귀의 피어싱, 여섯째 목·팔·가슴 등에 새기고 있는 패션 문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핑크의 각 요소들은 전통적인 의복 스타일이나, 남·여성성을 강조하는 의복 트렌드와의 융합을 이루는 가운데 토탈 코디네이션의 새로운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의복 뿐 아니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외모장식의 전 영역에 걸쳐 재 부상되고 있는 핑크의 각 요소들은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공존으로 야기될 수 있는 세대갈등을 새롭게 해석시킨 패션 코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핑크 감각은 새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이미지 메이커들과 각 분야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패션쇼와 뷰티쇼 무대는 물론 의복과 미용을 포함한 대중패션의 전 영역으로 확대 이용되어지면서 오늘날 토탈 코디네이션의 영향력 있는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핑크스타일 중 오늘날 가장 일반적이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향은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나타난다.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술되어지고 있는 머리염색 및 탈색, 화려한 컬러와 형태의 남성머리모양, 그리고 스타일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남녀 어린이의 헤어스타일 등은 외모장식에 크로스 오버 되어지고 있는 핑크이미지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젊은층과 개성적 패션 추구집단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핑크적 요소의 외모장식은 핑크스타일에 대한 시각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그것이 생성되었던 당시에는 기성세대

는 물론, 젊은층들에게까지 가장 불패한 반문화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할지라도, 현대의 새로운 미의식으로 재해석된 핑크스타일은 개성화, 차별화를 위한 가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람의 외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속성과 개성적 이미지 연출을 지향하는 집단의 증가현상은 향후 외모장식의 전반적 트렌드에도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개성 세대들의 마인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탈 패션연출을 위한 상품기획에 핑크스타일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핑크스타일의 특성이 단순히 지난 세기 하위문화 패션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21세기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아이콘으로 재조명 되어져 관련 분야의 트렌드 개발에 가치 있는 의미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창남(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 아카데미, pp.61-68.
- 2) 덕 헵디지(1998). 하위문화-스타일의 의미. 이동연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p.7.
- 3) 강혜원(2000).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141-142.
- 4) 정현숙, 양숙희(1999).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42), pp. 137-162.
- 5) Rebecca A(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pp. 32-62.
- 6) McDowell C(1997). The Man of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p.137-152.
- 7) 이연희 외(2002). 패션문화. 서울: 예학사, pp. 88-92.
- 8) <http://search.com>. 2003. 08. 14.
- 9) 신현준, 얼트문화와 록 음악(2000). 서울: 한나래, pp.17-19.
- 10) 신현준(1998). 록 음악의 아홉 가지 갈래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185-206.
- 11) 이해옥(2002). Fashion in History. FARBE, (37), pp.72-73.
- 12) 정현숙, 양숙희(1999). '앞의 글'.
- 13) 이경손, 김희섭(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10.
- 14) 유태순 외(1999). 패션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학지사, p.33.
- 15) 이현숙 외(2002). 패션과 뷰티를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도서출판 신정, pp. 23-25.
- 16) Bixler S. & Nix-Rice N(1996). The New Professional Image. Massachusetts: Adams Media Corp. pp.189-203.
- 17) Jackson C(1984). Color Me Beautiful. New York: Ballentine Books, pp. 207-211.
- 18) Spillane M. & Sherlock C(1995).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ew York: Madison Books, pp. 117-133.
- 19) Pooser D(1997). Always In Style. CA: Crisp Pub, pp.16-23.
- 20) Hell. R(1977). Interview in New Musical Express, 29 October. In Hebdige D(1979). Subculture. 21) London & New York: Routledge, p.63.
- 22) Hebdige D(1979). Sub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p.107.
- 23) Hebdige D(1979). '앞의 책', p.19.